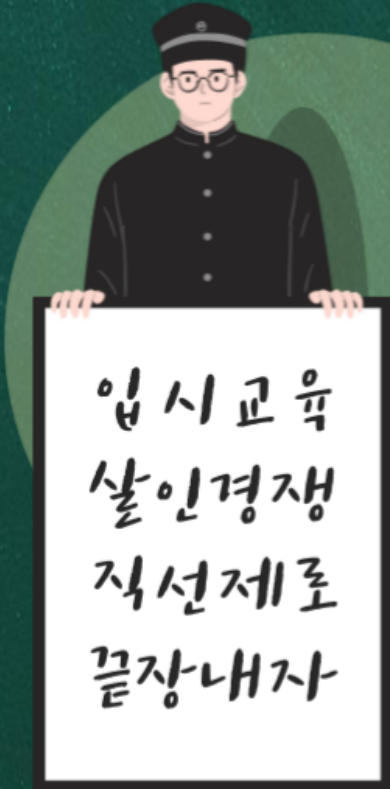


전교조 창립 30주년 맞이



8090 참교육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마당

# 그때, 우리는 학교와 정권에 맞서 싸웠다

입시교육  
살인경쟁  
직선제로  
끝장내자

30년 전 민주주의, 통일, 해방을 꿈꾼 이는 어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적 학생회, 입시경쟁 철폐, 전교조 교사 해직 반대를 외치며 나섰던 중고등학생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때 행동했던 사람들과 지금 행동하고 있는 청소년과의 만남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야기 손님 \*하파타 눈

- 조한진희(반다) 활동가, 다른 몸들(준)
- 정 용 주 초등 교사, 전교조 조합원
- 양 돌 규 노동자역사 한내
- 안 수 찬 한겨레 기자
- 김 영 희 연세대 교수
- 이 수 경 청소년인권운동 활동가

11/29 (금)

오후 6시 반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